

이기동, “羅末麗初 南中國 여러 나라와의 교섭”, 『역사학보』 제155집, 1997.

- 나말여초시기: 중국의 영향력이 거의 작용하지 못함.
  - 후백제, 고려가 교섭한 상대는 十國 모두는 아니고 吳越, 민국(閩國), 南唐에 그침
  - 대중국 관계는 대륙을 통한 五代와의 정치적 교섭 및 해상을 통한 南中國과의 교역을 포함시켜야함

## □ 장보고 시대의 유산

### 1. 在唐 신라인사회의 추이

- 장보고 : 중국 각지 분산된 신라인사회를 淸海鎮을 본영으로 하는 교역망속에 유기적으로 편제시킴.
  - 登州知後官: 신라조정이 (산동반도 첩단에 위치함) 登州에 거주하는 신라거류민과의 연락사무를 위해 설치한 관직.
- 등주: 통일기 선박이 황해 횡단항로를 따라 도항후 중국에 닿는 첫 번째 기항지. 840년대 중국내 최대의 신라인 집단 거류지가 형성됨.
  - 장보고 사후 반세기(또는 80여년)후까지도 등주에 신라인 교민사회가 건재함

### 2.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의 해상세력가들의 존재

- 장보고 : 해적소탕업무, 청해진 대사 권위에 의해 서남해안 일대의 해상무역업자 통제 및 교역 독점
  - 장보고의 사후(840년전후) 그의 몰락을 계기로 서남해안지방의 군소 무역업자들이 새로운 활기를 띠
- 신라의 대중국 항로의 변화 : 황해횡단 항로 → 남부사단항로
  - 장보고 시기: 남양만 당은포(화성군 서신면)→장산곶(황해도 장연군)등을 거쳐 황해 횡단 → 登州
  - 장보고 사후 9세기 후반: 황해 남부 斜斷 항로를 통해 남중국과의 직항로 이용, 시간 크게 절약

## □ 後三國의 鼎立과 南中國 諸國과의 교섭

### 1. 해상 활동 경험자로서의 甄萱과 王建

- 889년(진성여왕 3년) 상주의 농민반란의 전국 확산을 계기로 신라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배가 끝남.
  - 甄萱: 신라말 젊은 군인으로 서남해안의 해상 경비(海防) 임무 종사. 농민반란후 세력 규합하여 후백제 세움
  - 王建: 松岳(開) 지방의 해상무역업자 가문에서 태어남. 후고구려 세운 弓裔의 부하로서 수군 지휘. 왕건이 다도해상의 해적 소탕 과정에서 영암, 나주, 진도 등 서해안일대의 해상세력가들을 자신의 휘하에 집결시킴
- 왕건에 협력한 서남 해상세력들은 궁정 관료, 귀족이 되었으나, 惠宗(943-945) 말년 왕위계승쟁탈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몰락함 → 이후 麗宋 무역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남중국 상인이 장악
- 남중국 十國중 북방의 五代와 대치한 최강국: 吳(이후 南唐)로서, 양자강과 대운하가 연결되는 揚州를

- 수도로 淮南 지구와 江東, 江西 일대의 소위 江淮 지구를 차지함(중국대륙에서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)
- 후백제: 오대의 두 번째 왕조 後唐에 925년 12월 사신 보내 수교
- 고려: 오대 첫 번째 왕조 後梁이 망할 무렵인 923년부터 사신 보내 수교함. 뭇와 통교하지 않음

## 2. 吳越과의 교섭

- 후백제, 고려: 十國중 뭇의 동남해안에 위치한 吳越 및 閩國과 통교함
  - \* 吳越: 唐末 杭州를 도읍으로 하여 兩浙(절강성) 지방을 지배한 진해절도사 전류(錢鏐)가 세움.
  - 오월은 인접한 뭇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서 중원의 오대에 대하여 조공을 하며 거란과도 통함.
  - 오월: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산둥반도의 등주까지 진출
- 후백제: 견훤은 900년 왕을 자칭한 후 5월에 오월에 사신을 보내 錢氏로부터 檢校大保의 관작 받음. 후백제와 고려간 공산전투 직후인 927년말 오월의 班尙書가 사신으로 고려와의 화친을 권고하는 국서를 견훤에게 전달함
- 고려: 건국직후부터 오월과 통교함. 919년(태조) 9월과 923년(태조 6년) 6월에 사신을 오월에 파견한 것이 기록됨.

## 3. 閩國과의 교섭

- 민국: 王潮가 893년 福建觀察使가 되어 福州(현 복건성 민후현 동북)를 근거지로 자립함. 왕조의 사후 동생 王審知가 절도사가 됨. 왕심지는 당의 멸망 후 909년 왕이 되어 925년 죽을때까지 통치함
  - 고려 광종때 쌍기(雙冀)와 함께 과거제도 운영에 역할을 한 왕용(王融)이 중국 민국에서 온 귀화인임
  - 고려와 민국의 교섭시, 불표문화 분야가 두드러짐: 대장경 가져옴
- 민국이 내란 끝에 945년 8월 南唐에 의해 멸망함. 고려는 민국의 멸망이전시기에 남당에 사신을 보내어 수교함
  - \* 남당의 전신은 뭇였음. 937년 10월 실권자 서지고(徐知誥, 원명은 李昇)이 찬탈하여 국호를 남당으로 고치고, 수도를 양주에서 서쪽의 金陵(현재의 남경)으로 옮김.
  - 남당이 차지한 옛 민국지방과의 민간수준의 교섭은 민국 멸망뒤에도 계속됨
- 신라말기, 고려초기 시기 한국과 남중국 몇 나라와의 교섭은 공적 수준보다는 민간 수준에서 진행된 교역과 각종 문물의 수용에서 의의가 있음
- 고려청자의 기원: 역사적 배경으로 9세기 전반경 장보고 시대 오월 지방과의 교섭에서부터 오월국 시대에 이르는 문화교류가 큰 역할.
  - \* 秘色의 청자는 越州에서 제작되어 오월 국왕에게 진상, 왕실의 보호 육성아래 크게 발전함
- 고려와 오월국 양국간 불교 교류: 오월국을 통한 法眼宗의 수용, 고려로부터 오월국으로의 天台宗 경전의 수출 등 승려와 경전의 교류뿐만 아니라, 오월국의 발전된 불교 미술문화가 고려에 전래됨
- 민간 교역부분: 麗·宋 해상 무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월지방의 海商들임
  - \* 오월 지방이라 통칭되는 지역: 옛 오월국과 민국을 포함하는 지역이며, 엄격하게는 '閩國' 지방임
  - 麗·宋 무역은 장보고 시대 이래 남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羅·唐 무역의 연장선상에 위치함